KBS NEWS
기사프린트 창닫기

미국서 첫 남북한 영화제 개막

북한 영화 5편이 잇따라 상영되는 남북한 영화제가 오늘 미국에서 개막됐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열린 남북한 영화제에는 대학 관계자들과 영화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 신상옥 감독이 북한에 머물 당시 기획했던 영화 '홍길동'이 개막작으로 상영됐습니다.

3일 동안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북한의 영화 5편과 '웰컴 투 동막골' 등 우리 영화 5편 등이 상영되고 이어 전문가들의 발표와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영화제에 참석한 북한의 김명길 유엔 주재 차석 대사는 "이번 영화제는 지난해의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열리는 뜻깊은 행사가 됐다"며 "영화제를 통해 앞으로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간 화해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이영석 기자

입력시간 : 2008.01.26 (09:18) / 수정시간 : 2008.01.26 (13:50)

위로 창닫기

Copyright©2005 KBS all right reserved. mail to news webmaster